

對 話

□ S O S □

요새 西歐社會에서 떠돌고 있는 生態學的 危險이니 公害니 하는 소리는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어쩐지 내 귀에는 新版 豫言者의 소리처럼 들린다. 이스라엘의 豫言者는 個人들의 소리였다. 그러나 오늘의 부르짖음은 集團의이다. 과거의 豫言者의 소리는 直觀의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豫言의 소리는 科學的인 測定에 依한 것이다. 그러나 둘에 공통점이 있다. 그 하나는 人類全體의 운명에 대한 경교라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그 예언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無視當한다는 사실이다.

豫言은 언제나 그 時代에 逆行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사실 때문이다. 하나는 그 豫言은 그 時代에 앞섰기 때문이요 또 한 이유는 그 時代人이 잘 된다는 사실에만 도취하고 싶어하므로 그런 소리를 들을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를 과학적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은 오늘의 사회구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 30년 이내에 人間이 멸종

하리라 하고 하며 하루라도 빨리 손쓰지 않으면 그만큼 그 멸망의 날은 단축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아랑곳없이 그대로의 자세에서 그길을 달리고 있다. 亡할 때는 亡하드라도 지금은... 하는 자세다.

工場에서 배출하는 毒素, 파임스 피성에 依해서 내버리는 오물 때문에 이제 곧 사람에게는 食水가 끊긴다는 아우성이다. 日本만 해도 이제 20年內로 食水가 없어 죽으리라는 소동이다. 都市나 공장지대의 大氣는 이래로 나가다가는 들어 마실 空氣가 없게 되리라고 한다. 벌써 先進國의 큰 都市에는 昆虫들이 멸종돼 가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깨끗해져가 아니라 大氣오염 때문이란단다. 그것은 植物도 계속 마르게 한다. 이것이 人體內에 들어감으로써 벌써 많은 부작용을 이끈다고 한다. 그래서 工場지대에는 도피소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工場을 이동하거나 철폐해야 할 직전에 있다고 한다.

사람이 쓰다 내버린 폐물치리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다. 기업구조는 계속 消費性을 자극해서 사람들은 자꾸 새것, 새 스타일의 물건으로 바

꾸어치기를 하는 통에 내버리는 물건은 격증일로를 달린다. 그런데 그때품을 버릴 때가 없다고 한다. 더욱이 화공학의 위력을 시위한 플라스틱 用器들은 이 이상 생산하면 生成消滅의 自然의 과정을 을스름시키리라는 경고다. 그런 것을 땅에 묻으면 썩지 않아서 大地를 마비시키고 바다에 버리면 물고기들이 멸종되며 불에 태우면 大氣를 온통 오염시키기 때문에 처리할 길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주들은 계속적으로 生産競爭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들은 市場을 개척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新型을 만들어 내어 消費性을 자극 시키며 消費는 美德이라는 새 倫理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저들은 人間의 慾望이라는 本能을 자극한다. 군중은 저들의 장단에 발맞추어 욕망의 化身이 된다. 보다 많이, 보다 便利하게 보다 빠른 것, 보다 멋이 있는 것을 손에 넣기에 血眼이 된다. 그러므로 收入보다 消費性이 언제나 앞질러 가기 때문에 날이 갈 수록 바빠진다. 바빠진 결과는 廢物, 汚物이 세상을 뒤덮어 버린다.

先進國은 이미 폐물과 오물이 만연 되어 더 자리가 없게 되므로 그 처리장을 밖에 求한다. 그것이 바로 後進國이다. 전에는 이 현상을 後進國의 市場化라고 했으나 實은 汚物

과 廢物의 處理場이 된 것이다. 전에는 잉여곡물을 말했으나 지금은 잉여 工場과 製品을 말한다. 그런데 전에는 그것을 원조라고만 생각했으나 實은 下水口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났다. 그러나 後進國은 國民所得高라는 數字的 마술에 걸려서 날로 바빠만 지나 언제나 남이 먹다 내버린 것의 뒤처리에 전세를 바치므로 제정신 차릴 겨를이 없다는 실정이다.

이에 反해서 西歐에서는 「보다 더」라는 생활철학에서 구축된 오늘의 社會구조에서 脫出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 그러나 權力構造와 產業構造가 결탁되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를 멈출 超人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대 사회구조는 人類全體를 위한 方向보다는 그 자체의 軌道에 그대로 줄달음칠 뿐이다. 그로 인해서 人間疎外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 낡은 얘기고 이제 그것은 그것이 人間을 짓밟아 버리게 될 위험직전에 있다고 한다.

문제는 「보다 더」라는 物質主義다. 더우기 이런 생활관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업고 나타났다는 해괴한 현상은 무얼 말하는가. 정말 「보다 더」라는 생활관이 기독교적인가? 아니면 「보다 더」라는 풍조에 기독교는 마비, 변질된 것인가? 하여간 기독교는 그들의 사회구조의 牙城이 높아

집과 더불어 규탄의 대상이 됐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삶의 지혜를 東洋에서 求하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物質의 빈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랄의 빈곤에서 온 것에 눈을 떴기 때문이다. 그 모랄은 個人的 모랄로 끌어서는 소용이 없다. 이 社會構造를 뜯어 고치고 그 方向을 이끌어갈 주도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랄이 필요하다.

하여간 오늘날의 인간들은(先進國) 物質과잉의 상태 속에서 몸부림친다. 自然과의 단절상태에서 다시 自然에의 향수에 운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저항으로써 「보다 더」라는 슬로건 대신 「보다 적게」라는 소리를 지를 뿐 아니라 反文化的인 自然主義가 등장한다. 오늘날의 기계문명의 상징인 플라스틱을 매제하고 오히려 木器, 土器 등을 써야 한다고 하며 아스팔트보다 大地를 밟고 싶어하며 都市의 편리보다 原始林的 불편을 오히려 희구한다. 저들은 物質 부유에 체했다. 그런데 이러한 저들에게 새로운 길 길을 제시하는 이 없이는 저들은 한낱 패잔병의 신세로 유랑하다 지쳐 쓸어질 뿐이리라. 문제는 오늘날의 西歐的 사회구조와의 一大 決戰이 필요하다. 육구 총족의 生産 위주의 現代版 바알神과의 대결이 급선무다. 이것을 누가 하나? 옛 엘

리아를 부를 것인가 오늘날의 종교인들이 할 것인가.

□ 解氷 무드 □

千秋의 원수로 간주한 공산주의의 一大 牙城의 集團인 中共에 대해서 닉슨이 갑작스러운 추파를 던지는 데 끝이지 않고 그들과의 門戶開放을 행동으로 옮겨 마치 오래 못보던 친구를 맞이하기라도 할려는 듯이 닉슨 자신이 中共방문, 周恩來의 美國 방문등이 약속 됐다는 보도는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다. 이것이 닉슨의 次期選舉를 위한 전략이건, 美國의 市場開拓의 불가피한 布石이든 간에 벼락이 떨어진 곳은 爲先 우리다. 美國의 反共政策을 철석같이 믿고 反共과 生存을 직결시키고 살아온 우리에게 대체 이것은 무슨 아닌 밤중의 홍두깨며 청천의 벼락인가? 오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인가?

이 마당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관심사는 공산세계에 대한 기독교도들의 태도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의 反共정신은 政治的 차원을 넘어서 根本的 世界觀에 그 뿌리를 박고 있었다. 그러므로 對共關係는 물과 불의 관계로 간단히 처리했다. 그러나 국제 정치기상도는 물과 불이 共存

할 수 있다는 世紀的 기적을 만들어 낼려는 듯이 呪文을 열심히 외우고 있다. 이런 마당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 政治的 결정이 自由陣營과 共產진영 사이의 門을 열어 제치면 全面戰爭이라는 것은 避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代身 계리라 적 첩보전투가 民衆 속에서 치열해 질 것이다. 공산당의 미소정책은 實은 國民 한사람 한사람을 나누어 썰 발톱을 기르는 것을 意味한다. 저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解水 무드를 틈타서 民衆 속에 침투해서 한사람 한사람씩 흡수할 요원들을 기르는 일에 集中할 것이다. 이 마당에 기독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는 政府나 政治에 맡기고 우리는... 하는 團束的인 自己安保 자세를 계속 할 것인가.

칼이 있어도 쓸 수 없는 현실에서의 싸움은 어쩔 수 없이 思想戰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사상이 배양되고 있는가?

解水 무드는 기독교에 보내는 또 하나의 SOS다. 이것이야 말로 前線은 없고 전투만이 있는 현실임을 意味한다. 따라서 그것은 一對一의 實力對決의 때가 오고 있다는 나팔 소리다. 이제 기독교는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신념이 정말 산 것이며 거짓이 아닌지를 세상에 폭로하게 될

때가 왔다는 경고다. 이때야 말로 20세기 文明의 총 결산이며 그동안 기독교 안에서 일으킨 여러 주장과 운동이 하나의 자기기만이었는지 아니면 임전태세를 갖춘 것인지가 판가름 될 위기다.

韓國의 統一을 最大의 目的으로 내세웠을 때 한국의 기독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가? 以北에의 門이 열리는 날에 있을 宣敎政策을 구상해 왔는가? 이제 해빙 무드에서 야기될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莫大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에큐메네 운동은 그만 두고라도 각교파의 自派內的 알력과 싸움에 血眼이 되고 있다면 이젠 이미 기독교의 高地를 占領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 아이노고 □

한 그리스도人으로서 한국과 日本사람과의 관계를 슬피하고 그 안에서 어떤 召命을 느껴 몸을 바치기로 한 젊은 夫婦가 있다. 그 男便되 「사와」씨는 東京大學을 나온 후 神學校에 진출했으며 얼마 전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延大 聯合神學大學院에 2年間 적을 둔 일이 있으며 지금은 東京에서 牧會를 하는 이오, 그 아내는 延大 神科를 나와서 사와씨를 만나 결혼한 이다. 이들 사이에는 한 어

린애가 있다. 그 아이는 일본말로 '아이노코' 즉 混血兒이다. 이 두 夫婦가 이번 한국에 찾아와서 하루 저녁 함께 지낼 수 있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그 부인이 얼마 전 일본의 外國人 傭傭대회에 출전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그 전 해에도 출전해서 「국제결혼」이라는 제목으로 二等으로 당선됐다고 했는데 이번은 어린 아이의 문제를 두고 얘기했다고 하며 그것은 텔레비를 통해서 재일교포는 물론 日人에게도 충격을 주었다는 얘기다. 나는 그에게서 그 전 내용을 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것을 들으면서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 내용은 간단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在日교포의 비극성을 리얼하게 들어냈다. 그 내용은 대체 다음과 같았다.

이 아이는 일본 이름을 갖고 일본식으로 길러질 것인데 이가 장차 성장해서 그의 어머니가 韓國人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가는 곳 마다 배안시 당할 때 그 아이의 抗意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즉 내 엄마가 韓國人이기 때문에 一生을 콤플렉스에서 살아야 하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할까? 나는 결코 이 어린이에게 「아이노코」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너의 엄마는 한국인, 너희 아버지는 日本人이라는 것을 分明히 밝히겠다. 그와 동시에 日本에 너와 똑같은 입장에서 한국인이기에 원대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문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겠다. 그리고 너는 「아이노코」이나 그것은 바로 愛(아이)노(의)코(子)다. 너희 父母는 韓日間의 미움과 不信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표본이 될려고 했듯이 너도 그러한 사랑의 知惠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는 내용이었다.

피부의 黑白에서 오는 멸시와 저항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갈등, 前占領國民과 植民地 國民사이의 우월감과 열등의식이 세계에 그대로 엄존한다지만 日本에 있는 60萬의 우리 교포들이 韓日間の 政治 經濟의 인〈깊은〉유대관계라는 잔판 뒤에 이와같은 비극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가 완전히 二重構造 속에 進行되고 있음을 폭로한다. 왜 단순히 韓國人이기 때문에 멸시를 받아야 하는 民族이 됐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방위 후견인으로 日本을 등장시키려한다는 보도는 대체 무슨 아이로니인가.

하여간 젊은 靑年인 사와씨가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強者의 편에 있는 그리스도人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日本의 不義를 규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그 자세가 가늠하다. 더욱 그 부인의 월교가 바로 이 사와씨의 손에 의해 작성됐다

는 사실은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줬다.

□ 참 牧會者 □

간접으로 들은 얘기다. 地方에 있는 어떤 外國神父가 손에 住所들을 기록한 수첩을 들고 서울 바닥을 헤맸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찾아 다니는 대상은 그 지방에서 무턱대고 上京해서 남의 집 食母 아니면 공장

에서 일하는 시골처녀들이란다. 그는 자기 교구 안에 있는 가정에서 上京한 아이들의 이름과 住所를 얻어 넓은 서울을 헤매며 그들의 있는 곳과 處地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알고 善導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다. 여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먼 길을 떠난 현 대판 선한 목자의 모습이 보여 나는 얼굴도 모르는 그를 생각해서 정숙해졌다.